

[보도자료] 쿠팡, 대한화장품협회와 브랜드 보호 세미나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협력 강화”

2026. 9. 13.



지난 10일 화장품 브랜드 보호 세미나에서 조희경 쿠팡 IP법무팀 이사가 쿠팡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 브랜드사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 방안 논의
- 위조상품 대응 현황 공유하고 개선 강화 위한 협력 체계 이어갈 것

2026. 09. 13. 서울 - 쿠팡이 대한화장품협회(KCA)와 공동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브랜드 보호 세미나'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고객 신뢰를 높이고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K-뷰티 확산과 함께 위조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법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에서의 K-브랜드 위조 화장품 차단 건수는 2023년 1만6774건에서 2024년 2만3494건, 지난해 3만611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일 화장품 브랜드 보호 세미나에서 스벤-에릭 바텐버그 쿠팡 IP법무팀 이사가 쿠팡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세미나에선 쿠팡의 위조품 적발 프로세스와 대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조희경 쿠팡 IP법무팀 이사는 “악성 판매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조치’, AI 및 모니터링을 통한 ‘능동적 탐지조치’, 신고 접수 시 즉각 차단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사후 대응조치’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벤-에릭 바텐버그 쿠팡 IP법무팀 이사는 “주요 브랜드사들의 화장품 위조 신고를 즉각 접수 및 조치하기 위해 주말·공휴일과 늦은 저녁 시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화장품 브랜드 보호 세미나에서 니나 라메쉬 쿠팡 IP법무부문 총괄이 쿠팡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가품 수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브랜드사가 보유한 식별 정보와 유통 특성에 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쿠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위조품 적발 운영 프로세스에 적극 반영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운영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쿠팡은 정기적으로 주요 브랜드사들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스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나 라메쉬 쿠팡 IP법무부문 총괄은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은 브랜드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브랜드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